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A Study on Maternal Attribution and Parenting Behaviors*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 교수 박 경 란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장 현 숙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ung Rhan Park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Full Lecturer : Hyunsook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maternal attribution in parenting behaviors. Using an attributional model, it assessed whether maternal attributions about children's knowledge, capacity, expectation, and responsibility for behavior problems have effects on maternal behaviors of affect and authoritarian control. The sample consisted of 297 mothers who have first- and forth-grade childre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ternal attribution about children's knowledge for misconduct had positive influence on maternal aff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authoritarian control behaviors, and that maternal attribution of expectation negatively influenced the behavior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addition, such background factors as child age, gender, family income, family type, maternal education,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aternal attributions. In regard of mothering behaviors, child age, maternal age, and self-esteem were related to maternal affect, while family type and maternal self-esteem were related to authoritarian control.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maternal attributions in parenting for better child development.

* '97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왔다. 이는 아동의 인성이나 가치관, 그리고 행동 특성들이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발달되기 때문이다. 부모 역할행동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동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를 강조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행하는 일정한 양육행동에 내재한 원인(causes)을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모역할행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아동의 행동(예를 들어, 문제행동)에 대해 어떻게(how) 인지하고 판단하는가, 왜(why)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아동의 특성, 그리고 아동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행해지는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가 하는 부모의 귀인성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Goodnow & Collins, 1996; Miller, 1995),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실제 최근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는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인지(parents' cognition)'와 관련된 부모의 사고(idea), 신념(belief), 귀인(attribution)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자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 데 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녀양육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부모의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가 학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Dix, Ruble, Grusec, & Nixon, 1986; Dix, Ruble, & Zambarano, 1989; Gretaarsson & Gelfand, 1988; Himelstein, Graham, & Weiner, 1991; Larrance & Twentyman, 1983).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새로운 방향모색으로서 부모인지의 역할을 강조(김희진, 1997)하고 있는데, 구순주와 최보가(1996)는 아동(5학년생)의 비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이은희(1996)는 유치원 아동

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반응을 귀인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동의 행동이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지속적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誤귀인(misattribution)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부모가 아동의 행동 및 특성을 귀인하는 성향이 아동이나 부모 또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귀인성향이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행동은 그 상황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론(inferences)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Dix & Grusec, 1985).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 원인이나 동기, 또는 아동의 속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행동이 사회적 규율에 어긋난 것인가 혹은 통제적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부모의 귀인은 그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행동에 관한 부모의 귀인성향은 부모의 아동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며, 그러한 귀인성향은 여러 배경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귀인성향에 초점을 두고 모의 귀인성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예: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역할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모의 양육행동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은 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행동

1) 양육행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부모의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대개 부모의 행동에는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박성연(1989)은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경순(1992)은 양육행동을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나타내는 보편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양육행동의 구성요인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Baumrind(1971)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유형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유형을 '권위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권위있는(authoritative)' 부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최근 박성연과 이숙(1990)은 국민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등 7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최경순(1992)은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4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양하게 분석·제시되고 있지만, Rohner와 Rohner(1981)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과 통제의 두 차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숙(1988)은 자율-통제, 애정-거부의 두 차원은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요인 분석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양육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자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아동 중심적이며 자주 설명을 해주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여러 가지 규정과 금지를 강요하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

적이면서도 통제적인 형태(이원영, 1983)라고 한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민주적인가 혹은 통제적·권위적인가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인지능력, 성격형성, 자아개념, 성취동기, 사회적 역량, 성역할, 친사회적 행동, 애착 등 여러 측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동기 아동은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자아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보다 쉽게 상상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훈육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김광웅·방은영, 1992). 따라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떤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가는 아동의 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아동, 가족, 모의 특성과 모의 양육행동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몇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 아동의 특성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선행 연구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일상적인 돌봄이 적어짐에 따라 부모와 자녀와의 애정적 관계가 더욱 중요시된다(MacDonald & Parke, 1984; Russell & Russell, 1987)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는 다른 양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명령이나 강요된 순종 등과 같은 물리적 방법은 어린 아동에게 보다 빈번히 사용되는 반면, 설득·유도와 같은 인지적 방법은 보다 성숙한 아동에게 적용된다(Kuczynski et al., 1987)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통제·감독하는 경향이 적고 자율을 강조한다(McNally et al., 1991).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 기대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5). 즉,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다루기 힘들므로 남아에게 심한 훈육이나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Block, 1983) 반면, 여아에게는 보다 온정적으로 대한다(이수연, 1985)는 것이다. 아동의 측면에서도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부모를 보다 통제적으로(공인숙, 1989), 덜 긍정적으로(이수연, 1985)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부모의 반응이 다양함을 제시하고 있다.

(2) 가족 특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Zussman(1978)은 하류계층의 부모들은 보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인데 비해 중류계층의 부모들은 보다 허용적·민주적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이숙(1988)은 빈곤계층의 부모들이 온정적 유형보다는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아동의 경우 또한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명화, 1994).

가족형태별로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숙(1988)의 연구에서 남아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생활할 때 부모를 보다 온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모의 특성

모의 연령과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Papalia와 Olds(1995)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요구에 보다 민감한 반면, 젊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어른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더 강조하는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복희 등(1995)도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더 애정적이고(안재연, 1992) 수용적이다(운현선, 1983). 대체로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요구를 보다 잘 파악하며(Papalia & Olds, 1995),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부모를 더욱 온정적으로 지각한다(공인숙, 1989)고 한다.

한편, 모의 자존감은 아동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운현선(1983)은 모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애정적·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서, 모의 자존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손화희와 윤종희(1991)는 모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수용적, 독립심 권장의 양육태도를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2. 부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1) 배경변인에 따른 모의 귀인성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에서의 부모의 귀인성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바,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귀인성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조사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귀인성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부정적이 된다(Dix et al., 1989)고 한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더욱 큰 기대와 책임성이 부과되기 때문으로, 아동의 행동이 그의 연령에 상응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부모의 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귀인성향에 관해서는 선행연구 결과간차이가 있다. Gretaarsson과 Gelfand(1988)에 따르면, 어머니는 여아가 남아보다 선천적으로 더 남을 돕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아보다 여아의 행동을 보다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성향이라고 하였으며, 반면 하영희와 박혜원(1996)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귀인성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제시하였다.

가족의 특성으로서 사회적 지원(예: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정도와 귀인양식과의 관계에 관해 심희옥(1996)은 사회적 지원의 수는 내적(internal), 지속적(stable), 총체적(global) 귀인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러한 귀인양식은 자존감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자존감이 높은(/낮은) 사람일수록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해 내적이고 지속적이며 총체적

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아동학대 부모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긍정적 행동보다는 부정적 행동에 대해 보다 지속적이며 내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Larrance & Twentyman, 1983)고 한다. 이밖에, 부모가 지닌 자녀양육 이념(ideologies)도 그들의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테면 권위주의적 부모는 아동에게 보다 큰 능력과 책임성을 귀인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이고 처벌적인 훈육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Dix et al., 1989).

2) 아동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최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특성과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지와 관련된다고 제시한다. 아동의 행동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Grusec과 Kuczynski(1980)는 아동이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처벌(punishment)을 사용하고,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타인 지향적인 유도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는 아동이 물리적 손상이나 사회적 관습을 범하는 경우 명령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반면, 무례한 말의 사용이나 도덕적 윤리에 위배될 경우 설명·설득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다(Mills & Grusec, 1988). 특히, 부모는 아동이 긍정적·친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예: 남에게 무례함, 이기적, 남을 돕지 않기 등)보다 부정적·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예: 훔치기, 거짓말하기, 남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기 등)에 더 신체적 처벌을 사용한다(Grusec et al., 1982)고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특성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양육 방법이 결정된다(Mills & Grusec, 1988). 다시 말해서, 부모의 아동행동에 대한 반응은 부모가 그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부분 부모의 귀인성향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이은희, 1996; Dix et al., 1989; Miller, 1995). 문제행

동(misbehavior)이라 함은 아동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부적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부모는 아동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아동의 행동에 내재한 요구와 동기, 그리고 아동의 한계 등을 추론하여 그에 적절한 부모의 반응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Dix et al., 1986).

귀인이론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 원인에 대한 부모의 추론여하에 달려있다고 제시한다(Dix & Grusec, 1985). 즉,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아동의 동기나 의도, 그리고 그 상황을 아동이 알고 있는가 하는 추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문제행동)을 할 경우 부모는 그 행동에 대한 아동의 책임성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을 결정한다. Fincham과 Jaspers(1980)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처벌은 아동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적절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부정적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아동의 능력이 부족할 때,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을 경우 부모의 통제나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Dix 등(1986, 1989)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의 행동이 의도적인가, 아동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동이 지닌 성향에 의해 야기된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추론에 달려있다. 즉, 아동의 행동이 행동적 '지식'(knowledge)과 자기통제와 같은 '능력'(ability)의 부족으로 야기되었는가 하는 부모의 인지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행동이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부모는 설명과 유도가 보다 적절한 양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또한, Dix와 Grusec(1983)은 아동의 문제행동이 '명백한 규율 위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 이기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은 그

들의 부모역할행동을 적절히 수행해나가는 데 중요하며,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 원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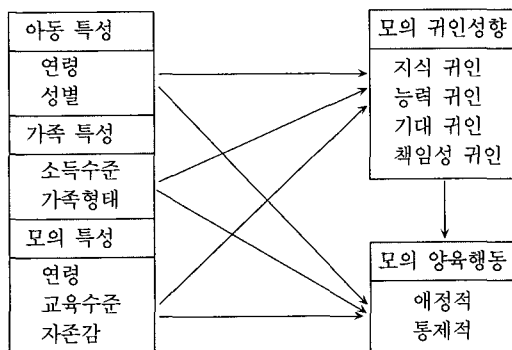
1.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가족·모의 특성에 따라 모의 귀인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가족·모의 특성에 따라 모의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모의 귀인성향에 따라 모의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이 문헌자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36명의 초등학교 어머니를 통해 면접을 겸한 예비조사를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여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10일간에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가족적 특성

| 변인 | 구분 | N | % | |
|----------|----------|--------------|------------|----------|
| 아동 특성 | 아동연령 | 1학년 (7세 전후) | 145 48.9 | |
| | | 4학년 (10세 전후) | 152 51.2 | |
| | 평균(S.D.) | | 8.5세 (1.6) | |
| | 아동성별 | 남자 | 138 46.9 | |
| 여자 | | 156 51.2 | | |
| 가정 배경 | 가정소득 | 100만원미만 | 22 7.6 | |
| | | 100~200만원 | 130 45.1 | |
| | | 200~300만원 | 79 27.4 | |
| | | 300~400만원 | 29 10.1 | |
| | | 400~500만원 | 7 2.4 | |
| | 500만원이상 | 21 7.3 | | |
| | 가족형태 | 핵가족 | 257 86.5 | |
| | | 확대가족 | 40 13.5 | |
| | 모의 특성 | 모연령 | 34세이하 | 77 26.0 |
| | | | 35~39세 | 169 57.1 |
| 40세이상 | | | 50 16.9 | |
| 평균(S.D.) | | 36.8세 (4.8) | | |
| 모학력 | 중졸이하 | 14 4.7 | | |
| | 고졸 | 144 48.6 | | |
| | 전문대졸 | 40 13.5 | | |
| | 대졸이상 | 98 33.1 | | |

*무응답으로 인해 빈도수가 다름.

걸쳐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부산광역시(3개 초등학교), 대구광역시(1개 초등학교), 천안시(1개 초등학교)의 5개 초등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부한 340부 가운데 총 311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297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분포를 나타낸 〈표 1〉을 보면, 조사대상자인 모의 연령은 평균 36.8세로서 35-39세가 57.1%로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고졸(48.6%), 대졸이상(33.1%), 전문대졸(13.5%)의 순서이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8.45세(6-11세)로서 남아가 46.9%, 여아가 53.1%를 차지한다. 한편, 가정의 소득은 조사대상자의 45.1%가 100만원-200만원 정도이며, 300만원 이상은 19.8%, 100만원 미만은 7.6%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대다수가 핵가족(86.5%)으로 확대가

족은 전체의 13.5%에 지나지 않았다.

3. 용어정의 및 척도

1) 자존감

자아(self)는 각 개인의 자신에 대한 반응을 말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아를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는 개념으로(조복희 등, 1995),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평가 또는 자아상으로 정의된다(Papalia & Olds, 1995). 본 연구에서 모의 자존감 측정은 Rosenberg (1986)의 자존감(Self-Esteem)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자기 가치, 자질, 실패감, 능력, 자존심, 긍정적 태도, 만족성, 자기존중, 무력감, 및 유용성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로 측정되어, 높은 점수가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다.

2) 귀인성향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성향은 Dix et al.(1989)의 귀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는데, 본래 10문항(문제행동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대상자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7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① 아동이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는가(“전혀 모른다”-“절대적으로 안다”)라는 지식(knowledge) 귀인(귀인A), ② 아동이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가(“전혀 아니다”-“정말 그렇다”)라는 능력(capacity) 귀인(귀인B), ③ 아동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하는가(“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다”-“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기대(expectation) 귀인(귀인C), 그리고 ④ 책임성여부(“전혀 없다”-“절대적으로 있다”)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귀인(귀인D) 등을 묻게 되어 있으며, 8가지의 문제행동 상황에 대한 네 형태의 질문내용에 각기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3) 양육행동

양육행동이란 아동양육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외현적·내현적 행동 및 특성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응답문항은 총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애정적 양육행동(9개 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9개 문항)의 2개 차원으로 나뉘어 진다.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중심적 또는 아동존중 태도와 아동요구에의 민감성 등이 포함되며,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의 충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강제성을 보이거나 간섭을 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형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 자존감, 귀인성향, 양육행동의 점수범위, 평균 및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자존감·귀인성향·양육행동의 범위, 평균 및 신뢰도

| 변인 | 점수범위(점) | 평균 | SD. | 신뢰도(α) | |
|------|---------|--------|--------|-----------------|-----|
| 자존감 | 10-40 | 26.62 | 3.73 | .81 | |
| 귀인성향 | 귀인 A | 8-56 | 39.56 | 9.30 | .85 |
| | 귀인 B | 8-56 | 46.85 | 7.00 | .81 |
| | 귀인 C | 8-56 | 34.01 | 10.30 | .85 |
| | 귀인 D | 8-56 | 41.83 | 7.27 | .80 |
| | 전체 | 32-224 | 162.34 | 23.28 | .88 |
| 양육행동 | 애정적 | 9-45 | 33.57 | 4.95 | .85 |
| | 통제적 | 9-45 | 26.52 | 4.56 | .72 |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로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과 모의 귀인성향과의 관계

〈표 3〉은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시 회귀 분석한 결과로서, 아동의 연령이 모의 귀인성향에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Dix et al., 1989). 즉, 아동의 연령은 지식 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p < .001$), 책임성($p < .01$)과 기대($p < .05$) 귀인에도 각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의 귀인성향은 책임성에 있어서 남아보다 여아에게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귀인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지,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모의 교육수준은 책임성 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 < .001$), 자존감은 지식 귀인에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존감이 높

〈표 3〉 배경변인과 모의 귀인성향과의 관계

(N=297)

| 독립변수 | 귀인A | 귀인B | 귀인C | 귀인D |
|-------------------|----------|----------|--------|-----------|
| | Beta | Beta | Beta | Beta |
| 아동 연령 | .207*** | .120 | .132* | .189** |
| 아동 성별 | .010 | .099 | -.035 | .122* |
| 소득 수준 | -.029 | -.185** | -.014 | -.148* |
| 가족 형태 | .051 | .094 | -.152* | .114 |
| 모 연령 | -.049 | -.026 | -.011 | -.042 |
| 모교육수준 | -.040 | .112 | .068 | .202*** |
| 모 자존감 | .160** | -.038 | .068 | .007 |
| (R ²) | (.046)** | (.044)** | (.021) | (.075)*** |

주1) 귀인A: 지식(Knowledge) 귀인; 귀인B: 능력(Capacity) 귀인; 귀인C: 기대(Expectation) 귀인; 귀인D: 책임성(Responsibility) 귀인

주2) 아동성별(남아=0, 여아=1) 및 가족형태(핵가족=0, 확대가족=1)는 dummy변수화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이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가족의 소득수준은 능력 귀인($p < .01$)과 책임성 귀인($p < .05$)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는 기대 귀인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 형태일수록 아동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p < .05$). 그러나, 모의 연령에 따른 귀인 성향에 있어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과 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표 4〉와 〈표 5〉는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이 모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시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배경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 4〉를 살펴보면, 분석에 포함된 7개의 독립변인 가운데 아동 연령($p < .05$), 모 연령($p < .05$), 모의 자존감($p < .001$)의 3개 변인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모의 자존감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갖는 경향이였다. 또한 연령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애정적인 행동을 높게 나타내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아동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

〈표 4〉 배경변인과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N=297)

| 독립변수 | r | B | Beta |
|----------------------------------|--------|-------|-----------|
| 아동 연령 | -.107 | -.359 | -.117* |
| 아동 성별 | .081 | .803 | .081 |
| 소득 수준 | .094 | -.211 | -.053 |
| 가족 형태 | .096 | 1.018 | .070 |
| 모 연령 | .054 | .197 | .129* |
| 모교육수준 | .159** | .467 | .092 |
| 모 자존감 | .524** | .685 | .517*** |
| R ² (R ²) | | .313 | (.295)***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배경변인과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 독립변수 | r | (N=297) | |
|----------------------------------|---------|---------|-----------|
| | | B | Beta |
| 아동 연령 | .045 | .001 | .032 |
| 아동 성별 | -.009 | -.108 | -.012 |
| 소득 수준 | -.078 | .002 | .005 |
| 가족 형태 | -.187** | -2.262 | -.169** |
| 모 연령 | .008 | -.003 | -.021 |
| 모교육수준 | -.110 | -.300 | -.064 |
| 모 자존감 | -.387** | -.450 | -.368*** |
| R ² (R ²) | | .182 | (.161)*** |

*p<.05, **p<.01, ***p<.001

은 반면,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머니는 애정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 소득수준, 가족형태, 모의 교육수준 등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가족형태(p<.01)와 모의 자존감(p<.001)의 두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자존감은 애정적 양육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적 양육행동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더욱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 없는 실패자로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통제적 행동을 많이 취한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핵가족 형태일 때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보다 통제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확대가족의 어머니는 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연령, 아동성별, 모 연령, 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5개 변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표 6〉은 모의 지식, 능력, 기대, 및 책임성 귀인

〈표 6〉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 독립변수 | 애 정 적 | | 통 제 적 | |
|----------------------------------|-------|---------|-------|----------|
| | B | Beta | B | Beta |
| | 귀인A | .008 | .153* | -.122 |
| 귀인B | .001 | .019 | .003 | .040 |
| 귀인C | .001 | .009 | -.006 | -.143* |
| 귀인D | .003 | .072 | .008 | .012 |
| R ² (R ²) | .037 | (.023)* | .059 | (.046)** |

주1) 귀인A: 지식(Knowledge) 귀인;
 귀인B: 능력(Capacity) 귀인;
 귀인C: 기대(Expectation) 귀인;
 귀인D: 책임성(Responsibility) 귀인
 *p<.05, **p<.01, ***p<.001

성향이 모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아동이 자신의 행동(문제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지식(knowledge)에 대한 귀인은 모의 애정적(p<.05), 통제적 행동(p<.001)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상황에서 자신의 자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귀인)한 어머니는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애정적 행동을 보이는 한편, 통제적 행동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행한 문제행동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하는가 하는 기대(expectation)에 대한 귀인은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p<.05)과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동이 행한 문제행동이 실제상황에서 자녀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덜 통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연령·성별), 가족(소득수준·가족형태), 및 모(연령·교육수준·자존감)의 특성에 따른 모의 귀인성향과 모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이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과 성별, 가족소득 및 형태, 그리고 모의 교육수준과 자존감 등이 모의 귀인성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연령은 가족 및 모의 특성이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식, 기대, 및 책임성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아동이 성장할수록 어머니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아동(행동)에 대해 보다 큰 기대와 책임성을 귀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는 아동에게 더욱 기대를 하게 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지식과 능력, 책임성 등이 크게 된다는 Dix 등(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아일수록 어머니는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큰 책임성을 귀인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사의 문제행동 특성이 대체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그러한 행동에 대해 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부모의 귀인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있어서 성역할 차이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데,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절하고 남을 돕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남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여아의 전형적인 특성(Gretarsson & Gelfand, 1988)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부모는 그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수준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아동(행동)에 대해 보다 관대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동 능력에 대한 추론이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적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할 능력을 지녔으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빈곤한 가정의 부모가 지닌 부정적인 귀인성향은 그들의 부모역할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f: Dix et al., 1986, 1989). 아울러, 가족의 형태가 확대가족일수록 아동의 행동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의 미흡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 귀인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바람직한 아동 발달 및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지식은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형성하여(구순주·최보가, 1996) 아동이 행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은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모의 자존감과 아동이 잘못 행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지식(knowledge)에 대한 귀인성향은 긍정적인 관계로서, 부정적이고 약한 자존감을 지닌 어머니는 아동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보다 어려움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Goodnow & Collins, 1996)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 오귀인하는 경향이 적어 보다 효율적인 부모역할행동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둘째로,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모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의 차이에 있어서 모의 자존감이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더욱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미정(1988)의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 '합리적인 지도', '친밀감' 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자기존중감이 낮은 아버지의 경우 자녀들에게 벌이나 복종과 같은 권위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쾌활하고 자신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유능하고 자녀에 대해서 수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멀리하며 육체적·정서적·지적으로 메마른 환경 속에서 무관심하며 냉담하게 자녀를 대한다는 Mussen(1979)의 주장(노동수, 1989 재인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모의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개인의 특성인 자존감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시 어머니 자신의 정체감, 자신감, 유능감, 존중감, 만족감 등의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양육시에 표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일 경우 모의 양육태도가 더욱 통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아들이 핵가족에서 생활하는 남아들보다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더 높게 지각하며, 반면 핵가족 형태의 남아들이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이숙(198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자신의 자녀를 기를 때와는 달리 손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갖는(조복희 외, 1995) 조부모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게 되므로 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통제빈도수가 적어지게 되고, 예로부터 어른들 앞에서 자녀에 대해 꾸지람이나 체벌을 삼가는 사회적 관습상 어머니가 통제적 행동을 가급적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행동은 더욱 애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약 37세임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어머니들의 자녀(초등학교 1, 4학년 대상)는 상대적으로 맏이인 경우(48.5%)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부모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맏자녀에게 관심은 많은 반면 애정적으로 엄격하고 정서적으로 덜 따뜻한 편이라는 조복희 등(1995)의 지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다는 지식에 귀인성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Larrance & Twentyman, 1983)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문제행동 상황은 실제 자신의 아동의 행동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동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어머니의 경우 통제적인 양육행동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큰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부모일수록 아동에 대해서 통제적인 경향이라는 Dix 등(1989)의 연구와 비교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동서양의 가치와 문화에 따른 부모의 귀인성향과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접근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는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아동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규명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귀인성향이 아동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귀인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통제적인 양육행동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아동(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일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이 보다 적절한 부모역할행동을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특성으로서 가족소득과 가족형태에 따른 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만을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예: 핵가족, 확대가

족, 편부모가족, 취업모가족 등)에 따른 부모의 귀인 성향과 자녀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해보고, 또한 모의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 이외에 우울 성향이나 자녀 양육관 등이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귀인성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 모의 귀인성향을 파악해 보았으나, 이외에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도덕성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 등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내용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조사해 봄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귀인성향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부모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 이외의 다양한 양육방법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조사해보고, 특별히 아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모역할행동에 관한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이 자녀양육행동에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해 보는 등 바람직한 부모역할행동을 위한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구순주·최보가(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0.
- 3) 김광웅·방은영(1992).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사.
- 4) 노동수(198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6)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7) 서명화(1994). 어머니의 자녀양육방법과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특성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손화희·윤종희(1991).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 9) 심희옥(1996).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 귀인양식과 매개요인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4(4), 63-74.
- 10)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윤현선(1983).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47-61.
- 13)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이은희(1996).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반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2), 31-42.
- 17)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5).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18)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하영희·박혜원(1996). 귀인 경향에 따른 도덕성(도덕신념, 판단, 행동) 발달 분석. 대한가정학회

- 지, 34(3), 271-282.
- 20) Baumrind, D. (1971). Harmonious parent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1, 92-102.
- 21)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22) Dix, T. H., & Grusec, J. E. (1983). Parental influence techniques: An attribu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4, 645-652.
- 23) Dix, T. H.,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201-233). Hillsdale, NJ: Erlbaum.
- 24) Dix, T. H., Ruble, D. N., Grusec, J. E., & Nixon, S. (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57, 879-894.
- 25) Dix, T. H., Ruble, D. N., & Zambaran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26) Fincham, F. D., & Jaspers, J. M. (1980).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om man the scientist to man as lawye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pp. 81-138). New York: Academic Press.
- 27) Goodnow, J. J., & Collins, W. (1996).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Lawrence Erlbaum.
- 28) Gretar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64-269.
- 29) Grusec, J. E., Dix, T. H., & Mills, R. (1982). The effects of type, severity, and victim of children's transgressions on internal disciplin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4, 276-289.
- 30) Grusec, J. E., & Kuczynski, L. (1980). Direction of effect in socialization: A comparison of the parent's vs the child'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9.
- 31) Himmelstein, S., Graham, S., & Weiner, B. (199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aternal beliefs about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2, 01-310.
- 32)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mius-Brown, O.(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99-806.
- 33) Larrance, D. T., & Twentyman, C. T. (1983). Maternal attributions and chil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49-457.
- 34)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35) McNally, S., Eisenberg, N., & Harris, J. D. (1991). Consistency and change in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values: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2, 190-198.
- 36) Miller, S. A. (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37) Mills, R. S. L., & Grusec, J. E.(1988). Soci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S.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pp. 177-191). New York: John Wiley & Sons.
- 38) Papalia, D. E., & Olds, S. W.(1995). *Human Development*(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39) Rohner, R. P., & Rohner, E. C.(1981).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

- 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40)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41) Russell, G., & Russell, A.(1987).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42) Zussman, J. U.(1988).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g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85-686.